

6



리아 스나이더 컬렉션 전시 1970년대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리처드 스나이더의 부인 리아 스나이더가 한국 미술품 컬렉션을 선보였다. 지난 14일 시작된 전시는 오는 11월 21일까지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950 3애브뉴 8층)에서 이어진다. 15일 전시 오프닝에서 관람객들이 미술품을 둘러보고 있다.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 제공]